

‘자전거 하이웨이’ 구축... “서울을 자전거 천국으로”

서울시 ‘보행 친화도시 신전략’ 가동 문정·마곡 등 5곳 자전거 특화지구로 3억원 투입...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서울시가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차도를 먼저 확보하고 공간이 남으면 보도를 만드는 산업화 시대 오랜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보행 친화도시 신전략’을 가동한다. 보행과 자전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후 순위로 나눔카, 전동휠 등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과 노상주차장, 가로공원 등을 고려하고 나머지 공간을 차도에 할애한다.

이와 관련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2시(현지시간) 1982년 시작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차 없는 거리(car-free)로 운영되는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ía)’ 현장을 방문,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서울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클로비아는 ‘자전거 길’(ciclocycle + via)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로, 1982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보고타 주요 간선도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차 없는 거리 행사다. 승용차 의존도를 낮춰 교통혼잡과 대기질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빈부격차가 심한 콜롬비아에서 두 발과 두 바퀴 중심의 도로공간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등한 도시라는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보고타시의 의지가 담긴 곳이기도 하다.

보고타시 북부 5개, 중부 6개, 남부 5



콜롬비아 보고타 ‘시클로비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개 노선 총 120km 구간의 도로가 7시간 동안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롤러스케이팅·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에게 개방된다. 현재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캐나다, 중남미 주요 도시에서 시클로비아를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 자전거가 차량과 분리되어 빠르고 안전하게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만의 전용도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항구 위 공간에 만든 코펜하겐의 자전거 고가도로 ‘사이클 스네이크(Cycle Snake)’, 열차 지상역사 상부 공간을 활용해 건설 예정인 런던의 ‘스카이 사이클(Sky Cycle)’ 처럼 서울형 자전거 하이웨이 CRT(Cycle Rapid Transportation)를 만들어 사통팔달 자전거 간선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자전거 도로망이 차도 옆 일부 공간을 할애한 불안한 더부살이 형

태였다면, 이번 CRT 구상은 차량,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도로 시설이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상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 혁신적 공간 활용으로 캐노피형 CRT, 튜브형 CRT,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린카펫 CRT 등 사람을 최우선하는 도로 공간이라는 서울시 교통철학과 도시 구조물의 특색에 부합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차로 높았던 가로변 자전거 도로로는 추진 중인 녹색교통지역 확대 및 도로 공간 재편과 연계해 과감히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높이로 조성한다. 차로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강교량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자전거도로망과 5개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도 조성한다.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조성 하겠습니다

Cycle Rapid Transportation

차도 한 편에서 자전거도로가 붙어있던 구조를 탈피, BRT 상부 등 공간별로 맞춤형 입체적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 자전거만으로 서울의 간선축을 달성할 수 있는

혁명적 개념과 형태의 자전거 전용 하이웨이 CRT



무장애 · 안전 · 신속 · 편리한

자전거 하이웨이 (CRT)



서울시 자전거하이웨이(CRT) 개념도. /서울시

5개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는 문정, 마곡, 향동, 위례, 고덕강일 5개 도시개발지구로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총 72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자전거도로율 40%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따름이 대여소도 집중 설치해 주거지-업무시설-지하철역간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3억원을 투입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개소별·구간별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 개시 4년 만에 누적 대여건수 2235만 건을 돌파하며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따름이는 내년 4세대 시대 개막을 앞두고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구릉지 거주 주민을 위해 전기따름이 1000대를 시범도입하고, 따름이 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주변에 입체형 자전거 스테이션 조성도 추진해 대중교통

과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한다.

‘차 없는 거리’도 전면 확대한다. 지상도로에서만 열린 ‘선(線)’ 단위 방식에서 ‘면(面)’ 단위로 확대, 관광객·쇼핑객으로 보행 수요가 많은 이태원 관광특구나 남대문 전통시장 등을 ‘차 없는 존(ZONE)’으로 특화운행을 추진한다. 추후 코엑스 주변 등 강남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잠수교, 광진교 등 한강교량도 정례적으로 ‘차 없는 다리’로 운영한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차 없는 거리도 신촌 물총축제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관광 명소화 한다.

박 시장은 “사통팔달 CRT를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통해 서울을 자전거 천국이자 확고하게 사람이 편한 도시,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범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잡아바, 결산 특집 테마관... ‘청년 기본소득’ 정책 인기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청년일자리·공공일자리 등 관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에 올 상반기 결산 특집 테마관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잡아바’는 일자리 지원정책과 교육 정보, 채용정보, 창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24만3379명의 신규 회원이 등록돼 총 67만9820명이 이용하고 있다.

상반기 잡아바에 등록된 경기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 정보는 총 493건이었으며, 364만 3196명의 도민이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정책 ‘잡아바’ 홍보영상 캡처. /경기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정책은 ‘2019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었고, ‘2019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복지포인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그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의 관심 키워드는 ▲청년일자리 ▲공공일자리 ▲채용정보 ▲통합공채 등이었으며, 관심 정책 분야는 ‘생활지원’ 정책이 25.06%, ‘재직지원’이

20.29%, ‘구직지원’ 19.59%, ‘주거지원’ 18.7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월 잡아바에 신규 개설된 ‘자기소개서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개설 두 달 반만에 약 600건의 컨설팅 요청이 있었으며, 컨설팅에 대한 이용자 평점은 4.75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쟁률 5.2대 1

3000명 모집에 1만5542명 지원 9월 20일 최종대상자 선발 발표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마감한 결과 3000명 모집에 1만 5542명이 지원해 경쟁률 5.2대 1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5년 도입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지원금으로 저축액을 두 배로 늘려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2000명을 모집해 1만4099명이 몰려 경쟁률 7대 1을 기록했고, 올해 모집인원을 1000명 늘렸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조회와 서류 심



사를 거쳐 오는 9월 20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꿈나래통장’도 500명 모집에 2075명이 몰려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경쟁률은 2.6대 1이었다. /김현정 기자

‘문화누리카드’로 공연·여행 최대 80% 할인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서울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 8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뮤지컬 등 공연

부터 국내 패키지 여행, 찾아가는 방문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제휴프로그램을 10~8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발급기간(2월1일~11월30일) 내 전국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27만 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도서·기차표·음반 구매 등 문화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제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결제 시 최대 70%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 가능하고 여행 프로그램의 경우 제휴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는다. /김현정 기자

약취방지시설 설치하면 최대 천만원 지원

서울시, 음식점·세탁소 등 설치비 지원

서울시는 음식점과 인쇄소, 세탁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 약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설치비의 70%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31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약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음식점 15곳을 조사한 결과 인근 주민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도 복합약취는 평균 63%, 먼지는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